


군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제12회 정기연주회

# 국·악·으로 듣는 진포대첩



2018. **10. 26.** 금 19:30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Gunsa Art Center

주최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후원 군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위원회

공연문의 063) 445-4866





## 프로그래م

여는무대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외 2곡 <가야금 4 중주>

지도: 송진아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우리지역 역사를 음악으로 풀어내는데, 시작 전 맑고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로 문을 열어봅니다. 고집스럽게 지켜온 우리 민족의 악기와 선율, 장단들이 이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고 들을 수 없는 우리민족만의 문화적 특징이 되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음악이 전하는 신명과 감동을 한껏 느낄 수 있는 10월의 멋진 날이 되기를 기원하며 25현 가야금으로 막을 올립니다.

### 1. 진포대첩가 <창작판소리>

作詩: 문홍식 作唱: 박연희

진포대첩의 역사기록을 바탕으로 판소리를 2009년에 창작하였으며 처음에는 내용을 각 대목별로 구분하여 준비하였으나 이 무대에서는 함축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자료의 한계와 현대적 언어에 소리붙임이 무척 어려운 작업이었으나 판소리반 단원들과 소리를 해 가며 또, 수정해 가며 완성한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한국 국악사 기록에 남을만한 우리단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 2. 진포의 가을 <개작 초연곡>

작곡: 강성오

진포대첩이 있던 음력8월은 추수를 마치고 추석한가위가 있는 계절입니다. 넓은 들녘에 풍요로운 가을을 음악으로 표현했으며 나무, 바람소리, 나뭇잎 등 왜구의 침략이 없는 평화로운 가을풍경을 연상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 그려보았습니다. 2009년 작곡한 곡을 다시 편곡하여 오늘 처음으로 무대에 올립니다.

### 3. 방황

작곡: 이경섭 택전: 군산택전회 시연단

고려 중기부터 왜구들이 해안가로 침입하여 온갖 노략질을 일삼았지만 고려 말에는 나라 안팎에 여러 문제들이 많아 탐관오리가 득세하고 군사들의 군기는 해이해져 왜구의 배를 보면 고려 수군이 못 본척 달아나기도 하였다니 백성들의 고통과 참혹함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말의 어지러운 세상을 음악으로 그려보며 세계무형문화 유산이며 고려 무사들이 연마했다는 맨손무술인 민족무예 '택전'과 함께 무대를 꾸며 봅니다.

### 4. 배 띄어라

작곡: 박범훈

고려수도인 개경(개성)근처 예성강 벽란도 포구에서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 출전하는 고려수군들을 그려봅니다. 최무선 장군이 만든 화포를 단단한 전함에 싣고 비장한 각오로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병사들의 모습, 적선은 500척이고 고려의 배는 100척이지만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배에 대포를 싣고 전장에 나서는 기록적인 날이고 왜구를 토벌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준 의미 있는 날에 힘차게 배를 띄어봅니다.

### 5. 신모듬 3악장

작곡: 박범훈

<협연> 팽과리: 조정빈 장구: 김태린 북: 김민성 징: 박현비 지도: 장태수

이 곡은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3악장 '놀이' 부분을 진포대첩 승리의 함성처럼 연주합니다. 조선시대 학자 권근이 최무선 장군의 업적을 칭송하며 시를 남겼는데 '님의 재략이 때맞추어 태어나니 30년 왜란이 하루 만에 평정되는 도다. 바람 실은 전선을 새들도 못 따라 가고 화차는 우레 소리를 울리며 진을 독촉하네. -중략- 한번바다 싸움에 흥포한 무리 쓸어버리네. 하늘에 뻗치던 도적의 기세 연기와 함께 사라지고 세상을 덮은 공과 이름은 해와 더불어 영혼하리' 이러한 진포대첩의 승리는 백성들의 평안뿐 아니라 훗날 200년 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순신의 전략과 화포, 판옥선의 근본이 되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